

“학생건강관리, 이제는

-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과 **安基燮** 씨

학교보건관계 업무에만 10년여를 관계했던 安基燮씨(32세,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과 지방보건기사보)의 첫

그는 학교보건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보건교육임을 제일 먼저 강조한다.



인상은 참으로 순수하고 선하다는 것이었다. 세상사에 찌들어보이지 않는 그의 밝은 표정 속에서 대전 학생들의 건강한 모습이 엿보이는 듯 했다.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보건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각 학교

보건교육에 그 초점을...”

마다 양호교사가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보건교육자로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면서 安基憐씨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양호교사들이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향상에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규 교과 과목에서 보건관련 과목 배정이 현실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주도되는 양호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생활향상에 맞추어졌던 지금까지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점을 보건교육의 정착이라는 쪽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安씨의 이러한 의견은 단순한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으로부터의 결론인 것을 그의 학생들에 대한 애정, 특히 학생건강에 대한 남다른 관심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좀 더 올바른 학생 건강 관리를 위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학생신체검사의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양호교사가 평소 학내 학생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

검사시에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조치를 강구해 주어야 합니다.』

安씨는 또 보건활동이라는 것은 무형적이며 결과가 즉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장기적 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생활 속에서 건강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그는 운동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하고, 10년여동안 거의 매일 아침 조깅을 해온 스포츠맨이기도 하다.

부인 김주양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다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 그는 취미삼아 쓴다는 詩가 수준급에 속해 각 보건관련 잡지에 자주 그의 詩가 등장하고 있다.(本誌 '89년 1월호에 “백두산” 게재)

함께 일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언제나 따뜻하고 성실하게 대해주는 宋鳳基(53세) 계장과 함께 대전시 학생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安基憐씨. 이웃과 동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그의 마음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올바른 양심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